

목회자의 프락



정용영 목사
청동은교회 담임

“악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잠언 24장 16절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실심이 일곱 번을 쓰러질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넘어질까 두려워 쉼 없이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故) 장영희 교수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에세이 책에서 평생 잊지 못할 때론 일화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애절한 외침은 비단 무대 위 배우의 대사만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결코 너무 늦은 때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곁에 아니라 무릎의 시작이었듯이 우리의 실패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 7월의 셋째 주를 맞았습니다. 지난 상반기기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후회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흘러간 물이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미국 유학 시절 6년 동안은 영혼과 열정을 쏟아부어 집필한 박사학위 논문 원고가 든 가방을 뚝배로 도둑맞았던 사건입니다. 컴퓨터 백업 파일조차 없던 시절이었기에 그것은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 그의 6년 세월과 존재 자체가 뚝배로 날아가 버린 듯한 청진력이었을 것입니다. 식물을 전파할 만큼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격렬한 고성을 지냈지만 결국 눈물을 닦고 책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논문을 처음부터 다시 써내어 끝마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정말 뼈아프게 다시 시작하기를 배웠고 절망과 희망은 늘 가까이 있다는 것 떨어져 주저앉기보다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는 것을 배웠다.”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과거를 한탄하는 것보다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먼지를 뽀뽀 털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절망을 이기는 가장 귀한 지혜라는 삶의 교훈이었습니다. 유명한 록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도 이와 같은 절망과 희망의 교차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형이 내려진 가장 아픈고 처절한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은 나의 희망, 나의 생명. 우리 다시 시작해요. 더 늦기 전에.”

과거를 붙들고 오늘까지 잃어버리기에 한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은혜가 너무도 큼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지난 시간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미래를 더 크게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넘어져 있나요?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지를 털고 다시 걸어야 합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사랑하십시오. 다시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오늘도 새로운 은혜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넘어질까 두려워 쉼 없이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故) 장영희 교수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에세이 책에서 평생 잊지 못할 때론 일화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외무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상달 칼럼



두상달 장로
가평문화원 이사장

부부싸움을 시작하거나 결어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자 쪽이다. 그런가하면 싸움의 원인 제 공자는 대부분 남편들이다. 그러고도 남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잘못해놓고도 사과할 줄도 모른다. 그 값싼 자존심 때문이다. 남남이라면 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 마음은 무겁게 하는 기억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흘러간 물이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잘못이다. 부부싸움에도 기대지수가 낮을수록 실망이나 불평 불만도 적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정성을 다하고 공들여 키운 자식 입수를 기대가 크다. 부자를 많이 할수록 더 큰 대가를 바란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었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그런 기대 때문에 실망이고 좌절이다. 기대 지수를 낮추어라. 그러면 행복해

것이다. 욕구나 바람이 적을수록 행복은 커진다. 배우자나 자녀를 한테도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외로움을 느끼는 쪽도 남자이다. 여자는 마음을 넓기면서부터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줄면서 점차 중성화된다. 그래서 젊었을 때와 달리 대답해 주고 터프해진다. 나이가 들면 여우같이 아내도 호랑이로

변한다. 반면 화목한 부부는 정서적 안정감과 심리적 행복감을 누리기 때문에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년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스위치 오버(switch over)를 해야 한다. 일 중심에서 관계중심으로 삶을 전환하는 것이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노년의 행복이 보장된다. 성공한 삶이란 노년이 행복해야 한다. 반면 젊었을 때 큰소리

기대지수와 노년의 행복

질것이다. 무음증에서도 자유로운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진정으로 이타적인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 사랑은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다. 기대가 크면 실망은 커진다. 기대와 실망은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기대지수를 낮추라. 그것이 노년의 정신건강에도 좋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 줄

변한다. 반면 남자는 점점 기백이 사라지고 소심해진다. 젊어서 아내를 호령하던 기세는 사라지고 호랑이 같은 아내에게 꼬리를 내리게 된다. 젊었을 때 전권을 휘두르고 싶었던 나도 이제는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울쪼리고 신다. 늙어서 구박받지 않으려는 생존전략이자 노후대책이다. 한마디로 일찍 주체파악을 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100세를 넘어 장수한 노인들을 보면 유독 부부 금실이 좋다고 한다. 복신 노인들이 교육과 우음증에 시달리는

평평지며 살았어도 늙어서 마음 편할 곳이 하나 없다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다. 앞으로 노년기는 더욱 길어질 것이다. 목표지향적 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여! 이 긴 노년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기복에 대한 기대지를 줄여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배우자 보살을 들어라. 배우자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배우자를 챙기고 배려하는 것이다. 배우자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남편의 회개

주님,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소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마 10:26 잃게 하옵소서. 어떤 은밀한 죄로부터 그를 정결케 하시고, 잘못했을 때에는 신속히 자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시3:12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불가피하게 고난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것이 자백하지 않은 죄악을 빌미로 한 대적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영예를 얻기 전에 먼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게 하는 모든 교만을 남편에게서 제거하시고 겸손케 하사, 그를 위해 주께서 준비하신 영예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시라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 139:23-24

내가 토설쳐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배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셀라). 시23:3-5

남편의 구원

주님, 환난 중에 주께 간구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10:18 주께 간구하오니, 제 남편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옵소서. 그를 (특정한 것의 이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구하여 주소서. 시11:1 그가 죄악을 분별케 하시고 주께 도움을 구하게 하소서. 간구하는 구원이 즉시 임하지 않더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의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완성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하소서. 빌1:6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13:2-3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가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눅:1:8

교회건물 매매·임대

광고 문의
T.062) 367-9109
F.062) 367-9108

※ 예배당, 기도원 등 교회 관련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광고입니다.



교회 임대

• 위치: 북구 중흥동 806-132(2층) 안보회관 건너편
• 면적: 35평
• 금액: 보증금 1,000만원 / 월60만원
010-7129-0281

교회 임대

• 위치: 북구 공원로 150-1 / 2층
• 면적: 40평
• 금액: 보증금 1,000만원 / 월35만원
※ 권리금 있음 ※ 깨끗하고 위치도 좋음
010-8884-2988

교회매매

• 위치: 북구 연양로 7번길 51-31
• 면적: 대지 132평 도로 15평
1층-예배당 35평
2층-사택 37.5평
• 금액: 9억3천만원 (중개가능 / 조정가능)
010-7653-8337

예배당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사암로(대로변)
※우산동, 소촌동, 신촌동이 교차하는 큰 사거리 인근
• 면적: 대지 121평, 연건평 110평
1층-60평사택, 식당, 교육관
2층-50평예배당, 120~150석
• 금액: 8억4천만원
010-2679-4934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신창로(신창지구)
• 면적: 대지 67평, 건평 80평
1층-예배당 40평 2층-사택 및 식당 40평
부속건물 중 이중 유아실 방수실
• 금액: 7억원
※리모델링(천장경 형도 및 편백)
010-9661-9099

교회 매매

• 위치: 북구 청소년수련관 부근 3층
• 면적: 대지 56평
1층 교회 2, 3층 주택
• 금액: 6억 3천만원
※성구 일체 포함
※ 수리 후 건물 깨끗
010-8210-5005

교회상가건물 매매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공원로 182번길(상가 4층)
• 면적: 대지 62평, 건평 13평
1층 - 인테리어 사무실(인수 후 편입설, 카페 가능)
2층 - 교회 / 3층 - 조경 사무실 / 4층 - 사택
• 금액: 6억(조정가능) • 교회비품 무상으로 드림(악기예배가)
※ 교회 이전으로 매매, 기도원, 개척교회, 목회사택, 타입중개가능 ※ 주변에 아파트 단지 없음
010-4154-7945

교회 매매 및 임대

• 위치: 송정동 아파트상가 (반지하 등동, 환기 잘됨)
• 면적: 30평 예배당(주방겸 목양실)
• 금액: 8천5백만원 / 임대 500 월35만원
※ 성물 집기포함, 가격조정가능
올리모델링, 교통주차편리
010-5600-8890

교회 임대

• 위치: 남구 백운로 66번길 파리바게트 3층
• 면적: 55평
• 금액: 보증금 1,500만 / 월 60만
※ 비건있음
010-7488-3375

교회 매매

• 위치: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사랑하는교회) (도청까지 차로 5분거리)
• 면적: 대지14평, 교회40평, 사택20평
• 금액: 1억 4천만원
※ 식당, 창고, 화장실
※ 성물의 자동차스타렉스1인승, 집기포함
010-8355-9200